

삼성, 2025 KBO 신인드래프트 배찬승 지명

〈대구고〉

시속 150㎞ 이상 공 자랑해
고교 통산 50경기 12승7패
평균자책점 2.91·볼넷 49개
"팀에 도움 되는 선수 될 것"

삼성 라이온즈가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대구고등학교 좌완 투수 배찬승을 지명했다.

삼성이 고심 끝에 '로컬보이' 배찬승을 지명하면서 팀 내 대구 출신 맏형인 원태인(경북고), 이승현(대구상원고) 등 지역을 대표하는 각 학교 에이스가 나란히 라이온즈파크 마운드에 서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됐다.

대구고등학교 좌완 투수 배찬승이 11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2025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삼성 라이온즈의 지명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 제공

182㎝·80㎏ 신체 조건을 가진 배찬승은 시속 150㎞ 이상의 빠른 공을 자랑한다. 고교 통산 50경기 12승7패 평균자책점 2.91(133이닝 43자책)에 탈삼진 157개에 볼넷 49개를 기록했다. 올해 성적이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청소년대표팀에 발탁된 후 최근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 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이종열 삼성 라이온즈 단장은 "올 시즌을 치르면서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좌완 불펜이 필요했다.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았고 최근 국제 대회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팀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수이기에 선택했다"고 밝혔다.

배찬승은 "팀의 1순위에 뽑힌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롤모델이 삼성 좌완 투수 백정현 선수라 밝히면서 "위기관리 능력과 변화구 완성도를 닮고 싶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2라운드에선 유신고 내야수 심재훈을 선택했다. 유신고의 주장을 겸하고 있는 심재훈은 올해 고교야구 주말리그 23경기에 출전해 86타수 39안타 5홈런, 29타점에 타율 0.453을 기록했다. 수준급 수비능력과 더불어 빠른 발과 주루능력도 보유해 1라운드에서 선택받지 못한 선수 중 가장 높은 순번이 예상됐었다.

삼성은 3라운드부터는 내야수 차승준(용마고)-외야수 함수호(대구상원고)-투수 권현우(광주제일고)-외야수 이진용(북일고)-투수 홍준영(동원과학기술대)-투수 천겸(부산고)-투수 우승완(세광고)-내야수 강민성(안산공업고)-투수 진희성(동산고)을 차례로 지명했다.

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은 지난해 팀 순위의 역순인 키움-한화-삼성-롯데-기아-두산-NC-SSG-KT-LG 순으로 진행됐다. '고교 최대어' 좌완 투수 덕수고 정현우가 전체 1순위 영예를 누리며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는다.

한편 지역 야구 명문고 대구상원고는 모두 4명(여동욱, 함수호, 이동영, 이세민)이 프로무대에 진출했으며 대구고(배찬승, 양현종, 권혁빈)와 경북고(박관우)가 뒤를 이었다. 권종민 기자

손흥민, 주장 완장 벗고 '북런던 더비' 준비

토트넘 복귀 15일 아스널전 출전
3라운드 뉴캐슬전서 시즌 첫 패배
득점 끌어 올려 분위기 반전 과제

오만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2차전에서 1골2도움의 맹위를 펼친 손흥민(토트넘)이 '주장 완장'을 대한민국에서 토트넘 것으로 바꾸고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과의 '주말 혈투'를 준비한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일(이하 한국시간) 오만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에서 3대 1로 승리하며 '홍명보호'가 새로 출범한 이후 첫 승전고(1승1무)를 울렸다. 홍명보호 첫 승리의 주역은 단연 '캡틴' 손흥민이었다. 1골2도움으로 한국이 넣은 3골에 모두 관여하며 승리의 파랑새 역할을 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 "승리하려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동반돼야 하는데, 오늘 모든 선수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돼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라며 공을 동료에게 돌리는 주장의 품격을 숨기지 않았다.

홍명보호에 첫 승리를 안긴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으로 복귀해 2024-20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 1일 뉴캐슬과 3라운드(1대 2 패)를 마치고 한국으로 향한 손흥민은 5일 팔레스타인전을 치른 뒤 7일 오전 오만으로 이동해 10일 오만전을 치르고 나서 곧바로 영국 런던행 비행기에 올라 토트넘으로 복귀하는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열흘 동안 영국→한국→오만→영국으로 이어지는 혹독한 일정을 견뎌낸 손흥민은 15일 오후 10시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예정된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다.

토트넘과 아스널은 북런던을 연고로 하는 라이벌로 두 팀의 경기는 '북런던 더비'로 불린다.

직전 3라운드에서 뉴캐슬에 패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한 토트넘(1승1무1패·승점 4)은 이번 주말 아스널(2승1무·승점 7)을 꺾고 분위기를 반전하는 게 과제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은 '아스널 킬러' 손흥민의 발끝에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EPL 무대에서 손흥민은 아스널과 18차례 만나 7골2도움의 맹위를 떨쳤다. 리그컵 2경기(1골)까지 따지면 아스널 상대로 통산 20경기 8골2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도 6라운드 첫 대결에서 멀티골(2골)을 넣었고, 35라운드 대결에서도 페널티킥 득점을 맛보며 '아스널 킬러'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홍명보호 첫 승리의 주연을 맡은 손흥민이 아스널을 상대로 또다시 킬러 본능을 살려낼지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첨단 인공파도 풀에서 서핑 즐기는 서퍼 11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서프 아부다비' 첨단 인공 파도 풀에서 한 서퍼가 서핑 하고 있다. '서프 아부다비' 규모는 약 5천100만㎡로 세계 최대 인공 파도 풀을 자랑한다. 연합뉴스

갈 길 멀던 홍명보호, 캡틴 '손흥민'이 구했다

오만전, 손 결승골로 3대1 승
교체카드 후반 23분에 사용
전술·경기 내용 등 부족 평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9월 A매치 기간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연전에서 1승1무의 성적을 냈다.

'약체' 팔레스타인과 홈 1차전에서 0대 0 충격의 무승부에 그쳐 가뜩이나 대한축구협회에 실망한 팬들의 분노를 키웠으나 11일 끝난 오만과의 2차전 원정 경기에선 3대 1 승리를 거두며 처음 승점 3을 챙겼다.

전문가들은 홍명보호가 우여곡절 끝에 첫 승리를 거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대륙 최고의 팀들이 경쟁하는 무대다. 다만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술과 경기 내용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하는 4-2-3-1 전술을 들고나왔다.

팔레스타인전과 전열은 비슷했지만, 선발 명단에서 선수가 다섯 명이나 바뀌었고, 전술적으로는 더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홍 감독은 오세훈(마치다)을 최전방에 놓고 2선에는 왼쪽부터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배치했다.

이들이 되도록 중앙에서 밀집하며 포진하고 좌우 풀백인 이명재(울산), 설영우(즈베즈다)가 높은 위치까지 공격 가담토록 했다.

황희찬이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으나 전반 중반부터는 오만이 주도권을 잡고 한국 진영을 괴롭혔다.

전반 중반부터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던 한국은 전반 막판 동점 골을 내줬다. 오만 우위의 흐름은 후반 중반까지 이어졌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오만이 실점한 다음에 더 많이 밀고 올라왔는데, 결국 후반 초반까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홍 감독의 전술 변화가 늦었던 점을 지적했다. 홍 감독이 첫 교체 카드를 쓴 시점은 후반 23분이었다.

한국은 손흥민의 결승 골로 승기를 잡는다.

막판 다시 4-2-3-1 전술로 돌아가며 안정을 꾀한 한국은 추가시간 주민규(울산)의 쐐기포로 3대 1 승리를 매조진다.

전술 변화의 방향성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다만, 변화의 시점이 일렀다면 더 수월하게 승리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승패와 별개로 이번 2연전 중 세대교체를 위한 실험을 거의 해 보지 못한 점도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K리그를 주름잡는 '영건' 양민혁(강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K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친 미드필더인 정호연(광주) 등이 이번 2연전에서 단 1분도 뛰지 못했다. 연합뉴스

33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울진군청 사격실업팀 금1·동1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이 지난 4일부터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33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울진군청 사격팀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대회 신기록(1886.6점)을 세우며,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개인전에서도 권은지 선수가 3위를 차지하며 지난 8월 열린 제54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서의 공기소총 단체전 2위와 개인전 2위(권은지)에 이어 우수한 성적을 이어갔다.

올림픽 이후 두 차례 메이저 경기에서 연속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대회 3연패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의 뛰어난 성과가 울진군의 위상을 높여 자랑스럽다"며 "사격팀의 활약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격 스포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